

인도네시아 관광시장 동향[7월]

'26.7.24(금) /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

□ 시장 동향

○ (방한) 2026년 5월 인니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현황

- '26.5월 인도네시아 방문 외국인 수는 총 1,382,087명으로, 전년 동기(1,306,000명) 대비 6% 증가, 전월(1,248,651명) 대비 11% 증가하였음. 주요 방문객 국적은 말레이시아, 호주, 싱가포르, 중국, 동티모르, 인도, 등임
- '26.5월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550,380명으로, 전년 동기(585,800명) 대비 6% 감소, 전월(643,660명) 대비 17% 감소하였음. 주요 감소 원인은 미국-이란 갈등에 따른 항공유 가격 상승과 현지 정세 및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 기인함. 주요 방문국은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중국, 사우디아라비아, 일본, 태국, 동티모르, 한국, 캄보디아, 베트남 순이며, 한국은 전월에 이어 8위를 유지함.

<2025-2026 인니 인바운드·아웃바운드 (단위 : 명)>

인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2025	1,156,012	1,022,894	984,769	1,164,539	1,306,000	1,417,096	1,481,346	1,505,220	1,394,910	1,348,993	1,199,007	1,405,860	15,386,646
2026	1,188,420	1,159,690	1,088,166	1,248,651	1,382,087	-	-	-	-	-	-	-	6,067,014
아웃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2025	990,110	759,070	582,080	926,600	585,800	727,560	869,930	684,930	695,910	725,420	794,730	823,770	9,165,910
2026	1,006,400	701,070	793,160	643,660	550,380	-	-	-	-	-	-	-	3,694,670

*[링크](#) (Badan Pusat Statistik, 2026), [링크](#) (Badan Pusat Statistik, 7.1)

○ (방한) 좌석 감축분 회복 등으로 인해 방한 수요 지속 증가 예상

- 대한항공-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에 따른 당국의 시정조치로 자카르타-인천 노선 운수권 일부가 재배분되어, '26년 4월 말 티웨이항공이 주 5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하였음. 이 과정에서 한때 주 2회까지 축소되었던 대한항공의 운항 편수가 '26년 6월부터 주 7회로 원복됨에 따라, 현재 자카르타-인천 노선은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가루다항공 매일 운항, 티웨이항공 주 5일 운항 체제를 구축함. 이처럼 노선 공급석이 정상화·확대됨에 따라 하반기 방한 관광 수요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*[링크](#) (UPI, 5.11)

○ (항공) 2026년 신규 국제선 운항 동향

- 에어아시아: 자카르타-싱가포르 운항 종료 (요안 항공유 가격 상승 및 노선 운영 효율화) (7.1~)
- 트랜스누사항공: 발라-푸켓 주 4편 운항 (9.9~)
- 그레이터베이항공: 수라바야-홍콩 주 4편 운항 (9.27~)

*[링크](#) (indo.miles, 4.30), [링크](#) (mothershipsg, 6.30), [링크](#) (Social Expat Indonesia, 7.20)

○ (경쟁국 동향) 일본, 인니관광객 대상 비자발급 수수료 인상

- 일본은 '26년 7월 1일부터 인니 관광객 대상 단수비자 발급 수수료를 Rp1,650,000 (기존 Rp330,000), 복수비자 Rp3,300,000(기존 Rp660,000)으로 400% 인상함. 일본 방문 시 일반 여권 소지자의 비자 비용 부담은 크게 늘었으나, 전자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VISA WAIVER를 등록할 수 있어(관광목적 체류 15일까지 가능) 실제 영향받는 범위는 일반 여권 소지자 및 장기/다회 방문자에 집중.

*[링크](#) (Kumparan Play, 7.2)

□ 정책 동향

○ (타겟) 인니 관광부, 2027년 인니 방문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 발표

- 인도네시아 관광부는 지난 7월, 2027년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1,900만 명으로 제시함. 이는 올해(2026년) 목표치인 1,700만 명 대비 약 11.8% 상향된 수치로, 2026년 5월 기준 진행률은 목표 대비 36% 수준을 기록 중

*[링크](#) (Good News From Indonesia, 7.3)

○ (최신 정책) 인도네시아 정부, 8월부터 시민권 관련 신규 수수료 제도 시행

-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신 정부령(Government Regulation No. 30 of 2026)에 따라, 2026년 8월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개정안을 시행 예정. 기존 수수료 대비 항목별 50%~400%까지 대폭 인상되며, 정부는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 및 물가·경제 상황(PNBP, 비세외수입)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라고 발표함. 또한 귀화 수수료 인상은 이민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, 인니 정부가 골든비자 등 고부가가치 장기 체류 관광 정책 중심으로 체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함

* 주요 수수료 개정 내용

- 일반 귀화: IDR 75,000,000 (약 636만 원)
- 혼인 귀화: IDR 25,000,000 (약 212만 원)
- 국제결혼 자녀 및 복수국적자 특수 신청: IDR 5,000,000 (약 42만 4천 원)
- 전 국적자의 인도네시아 국적 재취득: IDR 1,000,000 (약 8만 5천 원)

*[링크](#) (Social Expat Indonesia, 7.23)

○ (관광교류) 인니 법무부, 인니 방문 브라질, 튀르키예 등 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행

- 인니 법무부는 '26.7.9부터 인니를 방문하는 6개국(브라질, 페루, 벨라루스, 튀르키예, 카자흐스탄, 마카오)에 대한 30일 단기 관광 무비자 정책 시행

*[링크](#) (Social Expat Indo, 5.21), [링크](#) (Good News From Indonesia, 7.14)

□ 시사점

- 7월 들어 글로벌 관광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,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일부 국가 대상 무사증 입국 정책을 본격 시행. 주요 경쟁국들 또한 인니 관광객에 대한 입국 절차를 완화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어, 현지 해외 여행 수요 증가와 맞물려 방한 유치 시장에 새로운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- 반면, 자카르타-인천 노선 내 주요 국적 3사의 운항 편수 원복 및 확대, 일부 경쟁국의 비자 발급 비용 대폭 인상 등은 방한 수요를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유의미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 따라서 하반기 휴가철 대비해 고부가가치 테마 관광 상품과 인니 시장 특성을 고려한 무슬림 친화 상품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현지 마케팅을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